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RI-VALLEY

주임신부 : 오대석 바 오 로 925-259-2512
사목회장 : 이주하 요한사도 626-664-4508
총구역장 : 조재우 요 셉 408-966-5496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 강림 대축일

2025년 6월 8일 / 제693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s: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 사	교중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석근수 제1독서 함용기 제2독서 한재영

입당 142

봉헌 216, 512

Narrator Hawlan 1st Rolly Bantugan 2nd Isabella Chung

성체 179, 155

파견 147

입 당 송 |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11

화 답 송 | 104(103),1ㄱ과 24ㄱ.29ㄴ-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 서 | 1코린 12,3ㄷ-7.12-13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주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로.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주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 20,19-23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Date	Sunday School	Priest
06/08	N	Fr Gus
06/15	N	Fr Jim
06/22	N	Fr Philip
06/29	N	

“기도 부탁드립니다.”

You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김정희 테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홍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20.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글/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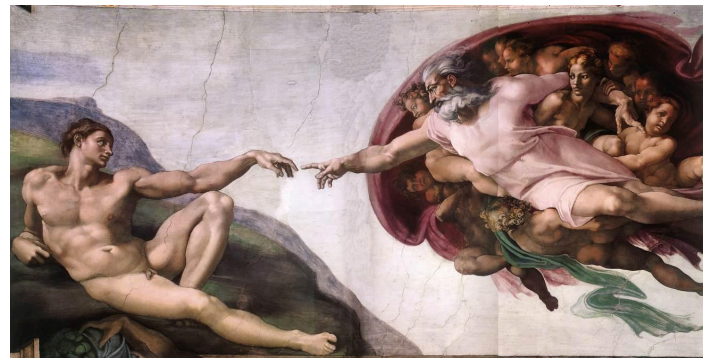
신학교에 갓 입학하여 라틴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던 시절, 괜히 라틴어를 쓰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애초에 신학 수업에서 주요 용어들은 라틴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아 이런저런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 하나가 Imago Dei(발음은 ‘이마고 데이’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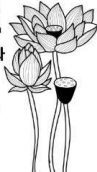
창세기 1장이 전하는 6일간의 천지창조에서 절정은 단연 인간의 창조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무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사명을 받았으며 하느님과 소통하며 그분과의 친교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가? 인간은 왜 다른 어떤 이유없이 그 자체로 소중하며 절대로 다른 무언가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는가?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교회는 바로 이 ‘하느님의 모상성’에서 찾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알아 사랑할 수 있으며”(사목현장, 12항), “이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사목현장, 24항)이고,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6항).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중요한 표현으로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7항)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하나하나의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존엄한 인격으로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나 다른 누군가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각자가 고유한 나로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많은 것들이 데이터들의 집합,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제작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시험관 아기나 배아 복제와 같이 인간 생명을 제한적으로나마 조작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의 결과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공동의 집 지구 안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며 인간을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며, 오직 인간만이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원하시어 창조하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음은 물론이고 당신의 아드님마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8항 참조). 물론 이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드높은 존재로 들어높이며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이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R 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164~166쪽, 355~361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관별,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	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gin@gmail.com	 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		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의 틀’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점진적인 축적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바뀌는 변화가 혁명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은 평평할 거라 믿었기에, 멀리서 오는 배가 돛대부터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서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은 배를 타고 계속 가더라도, 도달하는 끝은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에는 설명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 급격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불멘소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식으로 는 세상을 살 수 없고,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이용당하기 좋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설사 본인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마저 다른 뺨도 맞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기준 하에 사는 것과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복음이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모두 ‘형제’이며 서로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만일 형제끼리 각자의 것만 챙기고 조금의 양보도 없이 서로 보복하며 산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참아주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아도 마음으로 따르긴 어렵습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다 보면 ‘누가 저의 형제입니까?’ 혹은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라며 매몰찬 얼굴을 드러냅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하느님의 패러다임으로 넘어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설명 이해했다 하더라도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머리를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완전한 투신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은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1코린 12,3)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나아갔고, 또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	COMPASS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	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SUSHI HANAB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



공지사항

6월 전례 및 주요 일정

- 6월 8일(일): 성령 강림 대축일
- 6월 14일 (토): 꼬미시움 야유회(트라이밸리 주최)
- 6월 15일(일):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Father's Day
- 6월 22일(일): 성체 성혈 대축일
- 6월 27일(금):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 6월 27일(금) - 6월29일 (일): 2025 UNITAS - 한인 청년 피정

●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모임 및 새로운 회원 모집

- 일시 장소: 6월8일 오후1시, 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 성모회 "리노 공소 돕기" 물품 사전주문

- 품목: 된장, 고추장
- 접수신청: 6월 1일 - 8일
- 물품전달: 6/15 (주일)
- 문의: 성모회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 사랑의 모후 꾸리아 6월 월례 모임

- 일시 장소: 6월 8일(주일), 10시 45분, Room A
- 대상: 각 뽀레시디움 간부들

● 원죄 없으신 모후 꼬미시움 야유회

- 일시: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0:00 부터
- 장소: Amador Valley Community Park (4301 Black Ave, Pleasanton, CA 94566)
- 참가대상: 꼬미시움 산하 전 레지오 행동단원, 협조단원 및 가족

● TVCS 청소년들을 위한 Financial Education class

- 강사: Celvie Toramaya (Financial professional, Pleasanton chamber of commerce)
- 일시: 6월 22일(주일) 오전 9시 30분 - 11시
- 장소: Room A
- 신청: <https://tinyurl.com/tvcsclass>

● 성가브리엘 복사단 모집 및 예비 복사단 가족 모임 안내

- 예비 복사단 가족 모임 : 6월 8일 (주일), 오후 12시, 소성당
- 문의: 주은경 루시아(646-209-5585)

● 2025-2026 주일학교 등록 안내

- 6월 8일 (주일) 부터 주일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 장소: 교중미사 후 로비 테이블
- 링크: <https://www.tvkcc.org/sundayschool202526>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 (sundayschool@tvkcc.org)

● TVCS 4th Annual Soccer Gear Drive

- TVCS(트라이밸리 커뮤니티 서비스)는 CRECE (중남미 난민 위원회)와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축구 프로그램 "Better Together Soccer"을 위해 아래와 같이 donation을 받습니다..

- 새것 혹은 깨끗하게 쓴 축구 및 스포츠 용품 (유니폼, 축구화, 공, 등등) 또는 기부금 (pay to: CRECE)을 받습니다.

- 일시: 6월 30일(월)

- 수집장소: 소성당 앞 수집함 또는 St. Augustin

● 2025 UNITAS - 한인 청년 피정

- Date: June 27-29, 2025
- Location: San Damiano Retreat Center, Danville, CA
- Registration: www.unitasbayarea.org
- Regular registration by June 15 (\$270)
- For any questions: unitastretreat@gmail.com

● 남성 16차 꾸르실료 참가 신청

- 일시 : 7월 24일(목) ~ 27일(주일)
- 장소 : St. Clare's Retreat Center
- 문의 : 김현희 바드리시아(올드레아 간사)

● 제대꽃 봉사자 모집 안내

- 본당 제대꽃 봉사팀에서 새롭게 함께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며 기쁨으로 봉사하실 분 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봉사 내용: 제대 꽃꽂이 및 성당행사관련 준비
- 문의 및 신청: 김은경 카타리나 (415-971-7301)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Bishop's Appeal	
교중미사	영어미사	교무금	성소후원	Appeal	합계
\$1374	\$452	\$53000	\$100	\$100	\$732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계상진(5,6), 광진호(4-6), 김대수(1-6), 김명애(5,6), 김홍기(5-7), 박주암(4,5), 신계완(1-6), 엄상용(3-6), 이인현(4-6), 이희열(6,7), 정성진(4-6), 조현대(5), 최교운(6), 황준영(6)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신계완(1-6), 이희열(6,7), 조현대(5), 최교운(6)
- Bishop's Appeal 신계완(1-6), 이희열(6,7), 조현대(5), 최교운(6)
- 건축봉헌금 두신
- 감사봉헌금
- 간식봉헌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